

# ‘나일론 그물’ 대신 ‘친환경 그물’ 쓴다

지난 4월부터 실험에 들어간 생분해성 그물이 치어와 환경을 보호한다는 시험결과가 나와 올해 하반기부터 전남군 참조기 유자망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생분해성 재질로 된 이 그물은 물속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미생물먹이로 완전 분해되는 친환경 어구여서 환경오염을 막고, 어족자원 보호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소장 김이운)는 최근 끝개자망(일명 뒷자망)을 대상으로 기존 나일론 자망과 생분해성 재질로 만든 자망을 비교한 시험조업을 실시했다.

지난 4~6월 시험어구 1t(길이 400m)로 매월 1회씩 조사한 결과 생분해성 그물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 바다 속 2년 지나면 미생물먹이로 분해 오염 막고 치어 보호…유자망에 보급키로

나일론 그물과는 어획기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일론 그물에서 잡힌 끝개체수는 1천130마리, 생분해 그물은 463마리로 집계됐고, 총 중량은 각각 7만7천770g과 5만7천840g으로 현용 나일론 그물이 생분해 그물보다 개체수로는 약 2.4배, 중량으로는 약 1.3배 어획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끝개 포획금지 규격 6.4cm 이하의 어린 끝개의 마리 수는 나일론 그물과 생분해 그물이 각각 958마리와 295마리로 나타나 나일론 그물

이 생분해 그물보다 어린 끝개 어획 마리수가 훨씬 많은 약 3.2배에 달해 끝개 자원을 감소 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끝개 포획금지 대상이 아닌 6.4cm 이상을 초과하는 성체 끝개는 나일론 그물 172마리, 생분해 그물 168마리의 어획량을 보였으며 중량으로는 3만6천461g과 3만6천81g으로 나타나 어민들이 생분해 그물을 사용하는데도 실제적 어가 소득에는 차이가 없는 결과를 얻었다.

생분해성 그물은 석유추출물로 만 들며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술용 봉합주사, 마우스 캡, 주사기 등이 생분해성 그물과 같은 원료다. 나주에 있는 광주어방과 부산에 있는 삼성어방 등에서 만든다.

김이운 서해수산연구소장은 “생분해성 그물이 나일론 그물보다 어린 끝개 포획량이 3분의 1에 불과해 끝개 자원과 어획물을 처리하는 인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생분해 그물이 기존 나일론 그물보다 2~3배 비싸지만 어족자원을 확보하고 나일론 그물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해양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보조해 주고 있다. 올해 전남에는 10억원이 처음 보조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춤추며 건강 지켜요”

### 진도군 에어로빅 교실

진도군 보건소가 비만, 각종 만성질환 등 성인병 방지를 위해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3개 월 동안 여성회관 4층에서 매주 수·금요일 오후 4시부터 40세 이상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1시간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은 에어로빅 전문 강사를 초빙, 스트레칭과 워밍업 등 월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흥겨운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스포츠 댄스 등 웨딩 에어로빅을 오는 11월 개최되는 아리랑 축제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습관으로 만성질환 발병지연 및 질병예방이 가능하다”며 “주민 건강 증진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진도 사이버농업인 참외농장 연찬회

진도군 사이버농업인회 회원들이 최근 군내면 덕병리 참외농장을 방문, 친환경 재배기술과 판매·경영기법 등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번 현지 연찬회는 선진 농업정보 습득과 지역 농·특산물의 사이버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 “대불대는 교원탄압 중단하라”

#### 목포경실련 대학 정상화 촉구 성명

목포경실련은 12일 대불대학교의 교원탄압 중단과 대학 정상화를 촉구했다.

목포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임용에 필요한 영역별 기준 점수에 맞는 데도 대불대 교수협의회 카페 등에 수차례 글을 올려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송도 조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5명의 교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교원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교비를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교육

용이라는 명목 아래 땅을 사들이는데 사용해 설립자 일가의 재산을 증식시켜 준 반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 소홀해지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최근에는 한국 간호평가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목포경실련은 대불대에 정계권 남용과 재임용 탈락 등 일체의 인사권 남용행위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교원 보장과 함께 교원 고소 즉각 취하 등을 요구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r

# “무질서 극치 북항이 달라졌어요”

## 목포항만청, 주차장·화장실 설치 이용객 ‘호응’

“청사를 찾거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북항 주민들은 “피서철에는 사람과 차량이 몰리면서 불편주차 등을 통해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 줬는데 주차공간이 생기고 화장실이 설치되면서 한 주변이 깨끗해지고 차분해졌다”고 반겼다.

북포항만청은 최근 신안 섬 지역으로 가는 관문인 북항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이용객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사람과 차량이 영계 사고 위험이 있는 물양장과 도로간 경계에 울

타리가 쳐지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고 주변도 깨끗해졌다.

북항 주민들은 “피서철에는 사람과 차량이 몰리면서 불편주차 등을 통해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 줬는데 청사 앞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최근 민원인 전용 화장실을 만들고 개방해 환경이 되기도 했다.

영산호 하구둑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청사 주차장은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카풀 운전자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화장실이 없는 것이 흠이었다. 어찌 보면 돈을 들여 화장실을 만들지 않아 되는 일이지만 북포항만청은 정문 관용차 차고지 고쳐 날, 여화장실을 만든 데 이어 청사 곳곳에 꽃나무를 심고 그늘막 등을 만들어 이용객에게 개방했다.

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관광객과 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 사항을 먼저 찾아내 개선하고 있는데 청진이 쏟아져 쑥스럽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목포시 내년 ‘국비 확보’ 나섰다

## 정종득 시장·박지원 의원 기재부에 지원 요청

목포시가 목포대교 건설 사업비 등 2010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정종득 목포 시장과 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은 전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만나 지역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목포대교, 목포신항 건설사업 등의 조기 완공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야별 재

원부분 한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목포대교, 신항 등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넘겨진 사업비를 556억원 가량 증액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시는 전했다.

앞서 시는 목포대교 700억원, 목포신항 15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다. 그동안 시장과 박의원은 내년 국비확보 총력을

위해 1월초부터 발 빠른 행보를 시작해 수차례 국토해양부 등 중앙 부처와 국회를 방문, 지속적 교감을 형성하고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목포시는 이러한 노력을 결과 국비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올해는 2008년 910억원 대비 493억원이 늘어난 1천 403억원을 확보한바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2010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시까지 국비 신청된 사업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2010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시까지 국비 신청된 사업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목포신항 건설사업 등의 조기 완공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영산강 하구둑 개선사업 점검

### 농어촌공 흥문표사장 현장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흥문표 사장은 지난 11일 영산강 3·4지구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이에 앞서 10일에는 곡성지사 서봉지구와 함평지사 강운지구를 방문해 사업현장을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직원의 애로사항 청취와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구축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사장은 지난달 16일부터 14일까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지 등 전국 주요 사업현장을 순회하며 현장밀



착 경영을 펼치고 있다. 흥문표 사장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은 영산강 주변의 침수피해 예방과 갈수록 악화되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며 “일체의 부조리 척결 및 농어촌활성화로 농·어업인과 함께 하는 일등 공기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 대인동삼일부동산

②(代)223-1140, 5210 원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원, 대인동 소방서간-편)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를  
포기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있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 좋은 자리에 상가

#### 건물을 싸게 사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를

포기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있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는 물건 찾으세요,

정리하실 물건 팔아 드겠습니다.

# 경매 부동산 정보

현재 시세 15~50% 할인 매물

##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상가·토지

### \* 금융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 \* 개인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 \* 기타권 경매 취하 부동산 매매 \*

### \* 경매 예정 진행 부동산 상담 \*

### \* 경매 잔금 대납 부동산 상담 \*

### \* 광주 전남권 부동산 투자 상담 \*

경매·예정 진행 및 경매 잔금대납 부동산 선외 경력 남·여 시원모집

**금호부동산컨설팅**

224-5959, 010-2831-1733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가 36-3번지

## 국민공인증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